

2020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분석 [영어영역]

1. 총평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한 2019년 3월 학력평가 영어문제는 전년도 수능 문제 틀과 매우 유사하게 출제되었다. 듣기 17문항과 독해 28문항을 합쳐 총 45문항으로, 3점 배점 10문항을 포함하여 100점 만점으로 출제되었으며, 3점 문제는 전년도 수능처럼 듣기에서 3문제, 독해에서 7문제 출제가 유지되었다. 듣기와 독해에서 출제된 세트문항 역시 전년도 수능의 틀에 맞춰서 출제되었다.

3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첫 번째 치르는 학력평가라는 점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작년 수능 보다 쉬웠으며, 작년 3월 학력평가와 비교해도 쉽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위등급을 변별하는 문제 유형인 빈칸추론 4문제와 간접 쓰기 6문제, 문법 문제와 어휘문제 각 1문제 등 총 12문제가 전체적으로 작년 수능 대비 어렵지 않아서 상위권 학생들이 절대평가 등급 기준점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년 수능에서 신유형으로 출제되었던 밑줄의 함축의미 문제(30번), 빈칸추론 중 2점(31번) 문제와 3점(33번) 문제는 수험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또한, 29번 어휘추론 역시 문맥 파악을 세밀하게 요구하는 문제라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문맥에 맞는 문장 넣기 39번 문제도 제시된 문장이 어려워 오답을 고른 학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8번 문법 오류 찾기나 42번 장문에서 틀린 어휘 찾기 문제 등을 중심으로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되었다.

3월 학력평가 영어 문제 출제는 시기적으로 수능 연계 교재의 연계가 높지 않았지만, 출제된 어휘 등을 중심으로 볼 때 수능 특강 어휘를 활용한 간접 연계 지문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학생들이 연계교재인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중심으로 학습 방향을 이어 간다면 목표 등급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빈칸추론이나 간접쓰기에서는 비연계 고난도 지문이 출제될 수 있으므로 어휘력과 함께 문맥 추론 독해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단순히 어휘를 반복 암기하기보다는 주어진 문맥 속에 해당 어휘들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확인하는 문맥 분석 연습을 하는 것이 적절한 대비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그런 어휘 추론 연습을 통해 2020 대비 수능 특강 교재에는 없지만, 작년 수능에 새롭게 등장한 '밑줄 부분 함축 의미 추론 문제'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습 전략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자신의 목표 점수 달성 여부가 관건이다. 재학생들의 경우 상대평가 때는 졸업생들의 우월한 성적 분포에 상대적으로 고전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표 등급을 위한 전략적 관리만 잘하면 등급을 따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영어 문제는 이미 정형화된 틀로 출제된다. 즉, 45문제를 듣기 20분, 독해 50분 정도로 풀어야 하며, 독해 28문제를 문제 당 100초에 해결해야 한다. 또한 각 문항별로 난이도 차이가 분명해서 독해의 경우 18번부터 27번까지는 대체로 쉽고, 난도가 높은 문항은 28번에서 42번에 집중된다.

이렇게 정형화하여 출제되는 영어 문제를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 놓고 내 목표 등급을 위해 학

습 전략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즉, 1등급을 목표한다면 난도가 높은 부분인 빈칸추론이나 문맥추론 문제 연습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쉬운 문항을 60초안에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매우 어려운 킬러문항을 1~2개를 놓쳐도 되므로 전체적으로 실수를 줄이는 연습과 중간 난이도 문제 유형들을 빈틈없이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우선 2~3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내게 버거운 고난도 문항보다 절대적으로 잡아야 할 문제 유형에 몰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쉽다고 느껴지는 주제나 제목 문항이 2~3등급대의 변별 문항이 될 수 있으므로 주제 추론 연습을 많이 해야 하며,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를 피하는 연습을 해 두는 것이 좋다.

4~5등급으로 진입하고 싶은 수험생들은 일단 내게 맞지 않는 문항을 버리고, 독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 문항의 난이도를 A, B, C로 구분지어 볼 때 쉬운 난이도 C수준 문항만 모두 맞아도 48점에 B수준 문항 중 몇 개만 더 맞으면 4~5등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빈칸추론이나 문맥 넣고 맞추기 유형과 같은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 문항을 버리면서 쉬운 문항 독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물론 기본 어휘 암기는 점수 확보에 가장 중요한 지렛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대입 지원 전략

수험생들은 절대평가로 인해 대입에서 영어 비중이 전체적으로 낮아졌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학별 절대평가 적용 방법에 따라 영어 비중이 높은 대학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20학년도 대입 성균관대 논술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국수탐 중 2개 합 4로 낮아 보이지만 영어 2등급이 따로 설정되어 영어 2등급을 받지 못하면 무조건 불합격이며, 연세대도 수시에 최저를 없앴지만 정시 국제계열에는 지원 자격으로 영어 1등급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대학 중, 영어를 포함해서 등급 합을 제시하는 대학과 영어를 빼고 제시하는 대학은 해당 등급을 충족하는 인원의 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영어 등급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서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것이 좋고, 재학생의 경우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상위 등급을 확보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또한 정시에서 영어 등급 간 반영 점수를 높게 설정한 대학이 연세대, 경희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상위권 대학 외에도 수도권 및 지방권 대학들도 많다는 점을 숙지하고 수능 영어를 준비해야 한다.